

각과 내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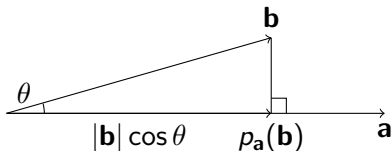
정리

영이 아닌 두 벡터 \mathbf{a} , \mathbf{b} 가 이루는 각을 θ 라고 하면,

$$\mathbf{a} \cdot \mathbf{b} = |\mathbf{a}||\mathbf{b}| \cos \theta$$

이다.

그림을 그려서 증명해보자. 편의상 예각인 경우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.



정사영 공식에 의해서

$$p_{\mathbf{a}}(\mathbf{b}) = \frac{\mathbf{a} \cdot \mathbf{b}}{\mathbf{a} \cdot \mathbf{a}} \mathbf{a}$$

이다. 한편, 위의 직각삼각형으로부터 $p_{\mathbf{a}}(\mathbf{b})$ 는 크기가 $|\mathbf{b}| \cos \theta$ 이면서 \mathbf{a} 와 나란하므로

$$p_{\mathbf{a}}(\mathbf{b}) = |\mathbf{b}| \cos \theta \times \frac{\mathbf{a}}{|\mathbf{a}|}$$

를 얻는다. 둘을 합쳐 정리하면 $\mathbf{a} \cdot \mathbf{b} = |\mathbf{a}| |\mathbf{b}| \cos \theta$ 를 얻는다. 둔각의 경우도 비슷하게 증명된다.

영이 아닌 벡터 \mathbf{a} , \mathbf{b} 와 이들이 이루는 각 θ 를 생각하자. 내적의 부호와 각의 모양은 다음 관계가 있다.

▶ θ 는 예각 $\Leftrightarrow \mathbf{a} \cdot \mathbf{b} > 0$

▶ θ 는 직각 $\Leftrightarrow \mathbf{a} \cdot \mathbf{b} = 0$

▶ θ 는 둔각 $\Leftrightarrow \mathbf{a} \cdot \mathbf{b} < 0$

생각해보기

n -공간에서 단위벡터들은 서로 수직이다.